

Restoration of Sri Lankan Bhikkhuni Sangha by Korean Buddhism and Subsequent Development

Kyungsook Kim(Ven. Ji-eun)
Joong-Ang Sangha University

Abstract

The Sri Lankan Bhikuni Order, founded and developed by the Buddhist nuns of Saṅghmittā around the 3rd century BC, were annihilated by the famine and invasion of the Chola tribes of South India around the 11th century. About 1,000 years later, in 1996, the Sri Lankan 'Bhikuni Dharma-lineage' was restored by Korean Buddhism. Although Korean Buddhism has accomplished such great historical achievements, there are few basic records of this important event due to internal Buddhist issues. Since little is known about the history of this precept ceremony, such as witnessing acarya and others traces. Scholars from various countries studying the problem of the Bhikuni Dharma-lineage in Southern Buddhism have inquired of the author several times because I have written one or two papers in this field. But I could not answer the questions because I did not understand the Ceremony Construction they asked. So, I started to record the basics of the ceremony, such as finding and recording the history of the elder monks who participated in the ceremony. In the process, it was possible to obtain the Ceremony Construction table prepared at the time of the precept ceremony. Accordingly I was able to write this thesis based on that table. Even now, 25 years later, it is quite fortunate to be able to record the noble achievements of the Sri Lankan 'Bhikuni' in their efforts to restore the Dharma-lineage.

Key words : Saṅghmittā, Restoration of Dharma-lineage, Precept ceremony, witnessing acarya, Ceremony Construction Table

Received November 18, 2021 **Revised** December 9, 2021 **Accepted** December 15, 2021

Author: Kyungsook Kim(Ven. Ji-eun),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m, Joong-Ang Sangha University
bs960@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한국불교의 스리랑카 비구니 승가복원과 그 이후 전개

김경숙(지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요 약

기원전 3세기경 상가밋타 비구니에 의해 성립되고 발전되던 스리랑카 비구니 교단은 11세기경 남 인도 출라족의 침입과 기근 등으로 멸절되었다. 그 후 약 1천년이 지난 1996년 한국불교에 의해 다시 비구니계맥이 복원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큰 업적을 한국불교가 이루어냈으나 불교내부의 문제로 이 중요한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 수계식의 존증아사리 등의 행적이 거의 밝혀져 있지 않아서 남방불교 비구니 계맥 문제를 연구하는 각국의 학자들이 몇 번 논자에게 문의를 해온 적이 있다. 이 분야에 한 두 편의 논문을 작성한 적은 있지만 논자도 그들이 질문하는 계단구성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어 있어 대답을 못해주었던 일이 있었다. 그래서 수계식에 참여했던 원로스님들의 이력부터 찾아 기록하는 등 수계식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수계식 당시 작성된 계단구성표를 구할 수 있게 되어, 그 표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스리랑카 비구니 계맥 복원을 위해 노력했던 숭고한 업적을 부족하나마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제어 : 상가밋타, 계맥복원, 수계식, 존증아사리, 계단구성표

I. 서 론

스리랑카 비구니 교단은 기원전 3세기경 인도 아쇼카(Ashoka)왕의 딸인 상가밋타(Saṅghamittā, 기원전 282-203)가 다른 비구니 10명¹⁾과 함께 스리랑카로 건너오면서 성립되고 발전해왔다. 상가미타는 30(32)살에 와서 79세에 열반하기까지 스리랑카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²⁾ 당시 여러 왕과 왕비들이 귀의하여 외호해 주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출가함으로써 교단은 번성해갔다. 이때를 테라바다 비구니 승가의 위상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번창해가던 비구니 교단은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 시대 말기부터는 조금씩 축소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동남아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최전성기를 이루며 힌두문화를 꽃피웠던 남인도의 출라(Chola)왕국의 라자라자(Rajaraja) 1세와 그의 아들 라젠드라(Rajendra) 1세는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왕국을 침입하여 파괴시켰다. 아누라다푸라 왕국은 1017년에 결국 멸망하게 되고, 강력한 정복자이며 힌두교 통치자들인 이들은 사원을 약탈·파괴하고 비구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마시는 등 악행을 자행하였고³⁾ 끝내 비구·비구니 승단도 멸절시켜 버렸다. 그 당시는 전쟁과 더불어 기근도 심해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 비참한 기록도 있다.⁴⁾

이후 스리랑카 남부를 거점으로 한 싱할라계 위자야바후(Vijayabahu) 1세가 지방 세력을 모아 1070년 출라족을 몰아내고 독립하게 된다. 그들은 폴론나루와(Polonnaruwa)에 새로운 수도를 정하고, 미얀마에 전해 주었던 계맥을 다시 이어오며, 경전을 들여오는 등 불교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비구 계맥은 다시 이어졌지만, 비구니 계맥은 다른 남방불교 국가들도 비슷한 형편이라 복원되지 못했다. 이렇게 단절된 비구니 계맥은 1천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1996년 12월 8일, 한국불교에 의해 다시 복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큰 업적이 한국불교 종단 내(內)의 상황⁵⁾으로 인해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1) 다른 비구니 10명: Uttara, Hema, Pasadpala, Aggimitta, Dasika, Pheggū, Pabbata, Matta, Malla, Dhammadasiya, <https://en.wikipedia.org/wiki/Saṅghamittā>.

2) Ambala Sri Rohana Nhanashila, ‘Sirilaka Meheni Udhawa(සිරිලකමෙහෙනි උද්‍ධාව)’, (Sri Lanka-Colombo: Ajith Printers (PVT) Ltd, 2012), p.185.

3) Inamaluwe Sri Sumangala, ‘스리랑카 비구니에 대한 연구(ශ්‍රී ලංකාවෙහි බික්‍ෂුණි පරිච්ඡෙදය පිළිබඳ විමර්ශන යක්)’, Sri Lanka-Colombo: M.D. Gunasena & Co(Pvt) Ltd, 2019), p.24.

4) 마성, 『스리랑카의 불교법난사』, (경남: 가야사, 1998), 19.

5)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의현 스님은 ‘총무원장 삼선개헌’ 등의 문제로 94년 6월 8일 조계종 초심호 계원으로부터 ‘멸빈(채탈도첩)’의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이 수계법회의 전계화상인 서암 전 종정스는 1993년 제8대 종정에 취임하였으나, 역시 이 조계종 사태로 1994년 7월 26일 기자 회견을 열고 종정직을 사퇴하였다. 이렇게 이 수계식에 앞장선 원로 대덕 스님들의 그 당시 위상이 매우 원만하지 못한 시

않다. 그 수계식에 주역으로 참여했던 스님들도 25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대부분 연로하여 지금 만나 뵙고 기록하지 않으면 스리랑카 비구니 계맥 복원을 위해 노력했던 숭고한 업적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에서 이 수계식에 참여하여 주요역할을 맡았던 스님들의 이력을 찾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범호가 널리 알려진 스님들도 있지만 스님들의 소속 종단이 모두 다르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스님들의 이력을 정확히 알아서 기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 다음으로는 이 수계식에서 계를 받은 스리랑카 비구니 스님들은 현재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계맥 복원을 위한 계단(戒壇)의 구성

비구니 계맥이 끊어진 후 스리랑카에서는 불교학자들 사이에 비구니 계맥 복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⁶⁾ 특히 1993년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사카디타(Sakya Dhitha) 회의가 개최되면서 이 논의가 한층 더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불교 측에서도 멸절된 ‘스리랑카 비구니 계맥 복원’에 대한 원력을 가진 선지식이 있었다. 그 선지식은 자운(慈雲, 1911-1992)을 사 스님으로 ‘스리랑카 비구니 계맥을 이어 주려는 깊은 원력이 있었다’고 본 수계식의 갈마 아사리인 의현스님은 밝히고 있다.⁷⁾

이러한 양국의 뜻있는 원로스님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스리랑카 비구니 승가의 복원 과정을 고찰해 본다.

1. 삼사(三師)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때 삼사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계를 주는 전계사(傳戒師, 傳戒阿闍梨), 계 받는 취지를 대중에게 알리는 표백(表白)과 갈마문을 읽는 갈마사(羯磨師, 羯磨阿闍梨), 위의와 작법을 가르치는 교수사(教授師, 教授阿闍梨)를 말한다.

1996년 12월 8일, 인도 바라나시(Varanasi)의 사르나트(Sarnāth)에서 열린 수계식에서 전계사는 서암(西庵) 전 종정(宗正) 스님이 맡고, 갈마아사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의현(義玄)스님, 교수아사리는 호계원장과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봉주(奉珠) 스님이 맡았다.

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추진했던 높은 뜻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6) 난다라타다, 「상좌부불교 현황」 『불교평론』 13, (서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2), 71-72.

7) <총무원장열전-석전스님에서 자승스님까지-(25·26대 총무원장 의현스님-하)>, 《법보신문》, 2020년 3월 27일.

1) 전계아사라-서암 스님

서암 스님은 1917년 10월 8일, 경북 안동군 녹전면 구송리에서 출생했다. 본명은 홍근(鴻根)이며, 16세에 예천 서악사(西嶽寺)로 출가하여, 1935년(19세) 경북 문경 김용사(金龍寺)에서 화산(華山) 스님을 은사로, 낙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계했다. 1937년(21세) 김룡사에서 금오(金烏) 선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그 해 대덕법계를 품수하고, 서암이란 법호를 받았다. 1938년(22세) 김룡사 강원을 졸업하고 독학으로 일본대 종교학과에 입학했으나 24세에 폐결핵으로 귀국했다. 이후 금강산 마하연(摩訶衍)에서 하안거를 했으며, 대승사에서 청담·성철 스님과 함께 안거했다. 1975년(59세) 제10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2개월 동안 역임했으며, 1991년(75세)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거쳐, 1993년(77세) 제8대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2003년(87세) 3월 29일 오전 7시 50분, 봉암사 염화실에서 입적하셨다.⁸⁾

2) 갈마아사라-의현 스님

의현 스님은 1936년 대구에서 출생했다. 1952년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향곡·청담·성철·자운 스님 등을 모시고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스님은 2대에서 10대까지 중앙종회의원과 동화사·은혜사 주지를 역임했다. 1981년과 1983년 중앙종회의장을 거쳐, 1986년 8월 조계종 제25대 총무원장에 선출되었다. 스님은 취임과 동시에 ‘불교의 자주화’를 앞세웠고, 1986년 9월 7일 해인사 승려대회를 계기로 불교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한국불교 개념’의 재정립을 외쳤다.⁹⁾ 1988년 12월 30일 정부로부터 10.27 법난 등에 대한 사과를 받고, 불교계의 권익회복을 위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¹⁰⁾ 의현 스님은 1990년 6월 22일, 제26대 총무원장으로 재당선되었다.¹¹⁾ 총무원장 임기 중, 불교방송 개국·중앙승가대 4년제 인가·불교 텔레비전 개국의 초석을 다지는 등 한국불교의 많은 숙원 과제들을 해결하였다.¹²⁾

3) 교수아사라-봉주스님

봉주 스님은 1936년 2월 함천에서 출생했으며, 1949년(14세), 해인사에서 인곡 대종사로부터 사미계를 수지했다. 1951년 해인사 범보전문강원에서 수학하고,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혜일 선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53년 해인사 선원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창원 성주사·대구 동화사·울진 불영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이후 1973년 해인사 주지·총무원 총무

8) <특집-서암스님 원적- 本無生死 도리로 일군 무위자적 87년>, 《법보신문》, 2004년 8월 10일.

9) <총무원장열전-석전스님에서 자승스님까지-(25·26대 총무원장 의현스님-중)>, 《법보신문》, 2020년 3월 23일.

10) <총무원장열전-의현스님-중>, 《법보신문》, 2020년 3월 23일.

11) <총무원장열전-의현스님-하>, 《법보신문》, 2020년 3월 27일.

12) <총무원장열전-석전스님에서 자승스님까지-(25·26대 총무원장 의현스님-상)>, 《법보신문》, 2020년 3월 16일.

부장(1978년)·중앙종회 부의장(1981년)·초심호계 위원장(1992년)·선거관리위원장(1998년)·영천 만불사 조실 등의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1월 23일 법납 71세, 세수 84세로 영천 만불사에서 입적했다.¹³⁾

2. 존증아사리(尊證阿闍梨)-9명

존증아사리는 수계의를 증명해 주는 증명사(證明師)를 말한다. 본 수계식의 존증아사리를 ‘계단구성표(Ceremony Comstruction Table)’의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영산일공(靈山一空, 원용종)·영산홍파(靈山泓坡, 관음종)·운학송산(雲鶴松山, 원용종)·눌옹도원(訥翁道元, 미상)·현옹남정(玄翁南亭, 충화종)·보우보인(輔宇寶印, 신인종)·혜은목탁(惠恩木鐸, 세계불교법왕청)·성봉사요(星峯思要, 조계종)·동화현철(桐華炫徹, 당시 조계종) 등 9명이다.¹⁴⁾

傳戒大和尚 SILSA UBERADHARACHA				
羯磨阿闍梨 KARMARA ACARARA	鴻根 西庵 HONG-GEUN SEO AM			教授阿闍梨 INSTRUCT ACARARA
影巖 義玄 YONG-G-DRAM EUI HYEON				靈峰 奉珠 YONG-G-BONG BONG JU
尊證阿闍梨 WITNESSING ACARARA				
靈山 一空 YONG-G-SAN IL KONG	靈山 泓坡 YONG-G-SAN HONG PA	雲鶴 松山 YUNGEOK SONG SAN	訥翁 道元 NUL-WANG DO WOUN	玄翁 南亭 YONG-WANG NAM JEONG
輔宇 寶印 BO-UWO BO IN	慧恩 木鐸 HWEEN-DEUK BULOK DEUK	星峯 思要 SENG-BONG SA YOO	桐華 炫徹 TONG-WHA HYEON CHEOL	
恩 師 TEACHER		法 師 TEACHER		
蓮庵 相源 YEON-AM SANG WHEON		雪松 法綜 SEUL-SONG BEUM SONG		
右 引禮師 ADULSARA		左 引禮師 ADULSARA		
道源 法機 DO-WOUN BEUM JI		圓心 大月 WOUNG-SIM DAE WOULL		

1996년 수계식 당시 작성된 계단구성표(戒壇構成表)

Ordination platform composition table, 1996.

13) <영천 만불사 조실 망우당 봉주스님 입적>, 《불교신문》, 2020년 1월 23일.

14) 계단구성표는 연암상원스님이 보관하던 자료로서, 2021년 8월 5일, 전국비구회 교육국장 유정스님에게 전해 받았다.

1) 영산일공 스님

영산일공 스님은 1932 충남 예산군 낙상리에서 출생했다. 1940년 예산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이후 청담 스님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한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원융무에 사상에 있음을 깨닫고 1977년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을 창종했다. 1982년 원융종 초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1983년 중화민국 임제종 복혜사 혜삼 대종사로부터 임제종 전법계를 전수받았다. 1991년 한·중·일 불교 문화교류 협의회 이사를 지냈다. 1997년 대한불교 원융종 제3세 종정에 추대되었다. 2001년 7월 1일 『원각경』을 편찬했으며,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법회를 개최했다. 2015년 음력 2월, 세수 84세, 법납 76세로 입적했다.¹⁵⁾

2) 영산홍파 스님

영산홍파 스님은 1943년 10월 8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1961년 5월, 태허 대종사 문하로 출가했다. 1965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을 맡았으며, 1966년 군승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군승과전 업무를 마무리 지었으며, 1967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재단법인 불교방송 창립이사를 역임했으며, 1998년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협의회(북경대회) 대표단장을 맡았다. 2010년 동국대 불교학과 동창회장 및 불교TV 이사를 역임했다. 2020년(현재)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표창 및 공로장(1991년 국민훈장 석류장-노태우, 2000년 대통령 표창 및 2001 공로장-김대중, 2005년 공로장-노무현)을 받았다.¹⁶⁾

3) 운학송산 스님

운학송산 스님은 1911년 출생으로 속명은 박도선이며, 이북 출신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109-33 천강사(구 성불사)를 창건하였으며, 1996년 4월 원융종에 입종하였다. 스님은 연로하신 가운데도 항상 신심을 가지고 여러 법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며, 사르나트 수계식에 참석했을 당시 최고령이었다고 하며, 102세 입적했다.¹⁷⁾

4) 놀옹도원 스님

놀옹도원 스님은 행장을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종파의 스님인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5) 현옹남정 스님

현옹남정 스님은 1938년 12월 18일 경북 영천에서 출생했다. 1969년 5월 10일 서울 용문정사

15) 원융종 일공스님 행장은 원융종 총무원 총무국장 명진스님에게 2020년 9월 3일 메일로 받았다.

16) 관음종 총무원(2021년 7월 19일) 제공.

17) 운학송산 스님 행장은 원융종 총무원 총무국장 명진스님에게 2021년 8월 19일에 제공받았다.

에서 최일허(崔一虛)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73년 6월 30일 동사(同寺)에서 이금담(李錦潭)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5년 10월 10일 봉선사(奉先寺) 만허(滿虛)스님을 법사로 입실건당했다. 대한불교 총화종 제5-제11대 종회의원을 지냈으며, 1988년 대한불교 총화종 제8대-제16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1993년 12월 13일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1999년 2월 1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았다. 2015년 11월 30일 대한불교 총화종 제14대 종정에 취임했으며, 2021년 4월 20일, 수진사 조실에 추대되었다.¹⁸⁾

6) 보우보인 스님

보우보인 스님은 1944년 5월 11일 충남 대덕군 유성면 상대리에서 출생했다. 1960년 경기도 군포시 용진사에서 혜천(조계종)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8년 태고종 12세와 15세, 종정을 역임한 보성두석(寶城斗石) 스님으로부터 법경(法鏡)이란 법호와 법계를 받았다. 사르나트 수계식 참가 당시는 원용종 총무원장 자격으로서 참가했으나 후에 신인종(神印宗)을 창종했다. 1998년 10월 종교세계신문사 주필을 맡았으며, 2001년 2월 신인종 종정에 취임했다. 2010년 2월 한국불교 종단연합회 원로위원과 2014년 8월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이사를 맡았다.¹⁹⁾

7) 혜은목탁 스님

혜은목탁 스님은 1942년 충남 보령에서 출생했으며, 동진 출가했다. 스리랑카의 스리 자야와르데나푸라(Sri Jayawardenapura)대학에서 철학박사(1987)와 미얀마의 양곤승가대학에서 불교학박사(1991)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목탁 스님이란 별명은 포교활동 중에 영업용 택시에 목탁을 달아주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또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교화하며, 교화신문을 발행하고 교화농장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미얀마의 친선교류협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온 혜은스님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3월 15일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작위인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작위를 받았다. (현)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현)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이다.

8) 성봉사요 스님

성봉사요 스님은 1967년 의현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 했으며, 대구 임휴사·청송 대전사·대구 은적사·포항 죽림사·가창 운흥사·대구 불광사 등의 주지를 역임했다. 대구 경북

18) 총화종 남정스님 이력은 본종 총무스님인 지오스님에게 2021년 5월 3일 메일로 받았다. 지오스님은 1996년 사르나트 수계식에 직접 참석했던 스님이기도 하다.

19) 신인종 보우보인 스님 약력은 2021년 8월 24일, 보인스님 본인과 한국불교 종단연합회 윤기순님으로부터 전해 받았다.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능인중·고등학교 감사, 총무원장 사서실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상좌로서 법호는 능종(能宗)이다. 2020년 4월 23일,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에 임명되었다.²⁰⁾

9) 동화현철 스님

동화현철 스님은 대구 정법사와 대구 불광사 주지를 역임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이상 존증아사리 스님들의 약력을 찾아 간략히 기록하였다.

3. 은사(恩師) 및 그 외 계단구성에 참여한 스님들

1) 연암상원(蓮庵相源, 조계종) 스님은 본 수계식의 수계자 10명의 은사스님으로 1939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했다. 1959년 충남 예산여고를 졸업하고, 해인사 삼선암 복만(福萬)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같은 해 도원(道圓)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1966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으며, 동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 1975년 관악구 신림동 소재 보명사를 창건했다. 1982년 6월 스리랑카에서 열린 세계불교학자 및 지도자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했다. 2001년 University of Western Sydney에서 열린 ‘Buddhism in the Contemporary World’세미나에서 한국 사회복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2002년 3월 스리랑카 승가회로부터 ‘Buddha Sasana Vishwa Keerthi Sri’칭호를 받았다. 2004년 인도 정부초청 International Conclave on ‘Buddhism and spiritual journey’국제회의에 참석했다. 2004년 6월 주한 미얀마 대사로부터 명예 친선대사로 위촉받았다. 이외에도 국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교발전에 기여하고 있다.²¹⁾

2) 법사 설송법종(雪松法綜, 보문종) 스님은 1938년 2월 15일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서 출생했다. 1960년 서울 보문사에서 은영(恩榮)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1년 보문사에서 관응(觀應)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았다. 1968년 보문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1975년 정혜사에서 묵담(默潭)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1981년 보문종 교무부장·1990년 보문종 총무원 부원장·1998년 보문종 호계원장·2000년 사회복지 나눔마을 이사장을 지냈다. 2004~2014년 보문종 11대~13대 총무원장 역임했다.²²⁾

20) 〈조계종, 동화사 주지에 사요 스님 임명〉, 《newsis》, 2020년 4월 23일.

21) 한국비구니연구소, 『한국비구니수행담론』中, (서울: 뜨란출판사, 2007), 621-622.

22) 보문종 법종스님의 약력은 2021년 8월 24일, 보문종 총무부장 자문스님이 메일로 보내 주었다.

3) 인례사(引禮師)-2명

인례사는 수계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계자들을 이끌어 안내하고 진행을 돕는 스님을 말한다.

(1) 우(右)인례사 도원법기(道源法機, 조계종) 스님은 1960년 울산에서 출생했다. 통도사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1976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였고, 1995년 일타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84년 대만으로 유학하여 불광산사와 원광불학원(圓光佛學院)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통도사 포교국장·김포 봉정사와 밀양 표충사 주지(박물관장겸직)·김포 및 밀양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화사 사회국장겸 박물관장과 대구 화장사(華藏寺) 주지, 그리고 세계불교승가회 부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²³⁾

(2) 좌(左)인례사 원심대월(圓心大月, 원용종) 스님은 1936년 경기도 수원 근교에서 출생했으며, 본명은 박석봉이다. 1955년 무학여고를 졸업했다. 1974년 일공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면 영덕리에 천통사를 건립하였다. 1986년 일공종정에게 입실건당하였고, 1988년 원용종 종정사서실장을 지냈으며, 1991년 원용종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2005년 일산 동구 백석동으로 사찰을 이전했다. 2007년 7월 암 투병 중 입적하였다.²⁴⁾

이상 계단구성표에 범명이 기록된 스님들의 이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간단하게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여러 종단에서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수계식 진행과정에서 도움을 준 스님들이기도 하다.

III. 수계자 10명의 약력과 근황

본 수계식에서 역사적인 구족계를 받은 10명의 스리랑카 비구니 스님들은 누구인지, 또 지금은 어떻게 수행과 교화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스님들에 대한 약력과 근황에 대해서는 스리 자야와르데나푸라 대학 교수인 DR. Nawalapitiye Anuradha Sudhammika 비구니 스님²⁵⁾에게 자료 조사를 부탁했다. 2020년 8월 29일, 아누라다 수담미카 스님에게 수계자 스님들에 대한 근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2021년 2월 10일에 조사한 자료를 받았으나 스리랑카 역시 팬데믹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는 어려웠다고 한다. 수담미카 스님이 보낸 자료와 그 밖의 자료들을 의지하여 다음과 같

23) 법기스님의 약력은 대구 화장사 종무소 이승주님이 2021년 8월 21일, 메일로 보내 주었다.

24) 범명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타종단의 입적한 비구니 스님의 행적을 찾아 기록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 2021년 8월 19일, 원용종 총무국장 명진스님의 도움으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25) DR. Nawalapitiye Anuradha Sudhammika, Senior Lecturer, University of Sri Jayawardenapura.

은 내용을 정리 할 수 있었다.

이 수계식에서 구족계를 받은 스리랑카 비구니 스님들의 법명은 ① Rev. Kolonnawe Kusuma, ② Rev. Peliyagada Sudarsana, ③ Rev. Wekada Monarya Bhadra, ④ Rev. Mathale Vijitha, ⑤ Rev. Dalupothagama Hemapali, ⑥ Rev. Chintha Chandradassi, ⑦ Rev. Karawanelle Sama, ⑧ Rev. Bandarawela Sudhammika ⑨ Rev. Galle Subhadra, ⑩ Rev. Thammita Subhadra이다.

(1) Rev. Kolonnawe Kusuma는 1929년 10월 9일 콜롬보 근교의 Kolonnawa에서 출생했다.²⁶⁾ 스리 자야와르데나푸라 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주 볼 주립 대학(Ball State University)에서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을 공부하여 이후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스리 자야와르데나푸라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연구에 몰두했지만, 과학이 물질적 본질에만 답변을 제시할 뿐 내면세계에 대한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교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후 쿠스마는 불교공부에 몰두하여 두 개 분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하나는 Sati in Buddhist Meditation이고, 또 다른 하나는 Research on Bikkhuni Vinaya에 관한 논문이다.

쿠스마는 불교의 내면을 접하면서 비구승들은 높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위치에 있는 반면에 다사 실 마타(Dasa Sil Matha) 등 여성출가자들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 보였다. 그들의 처지는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느껴졌고 정신적 수행의 완성도 힘들어 보였다. 쿠스마는 불확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사 실 마타들의 권익을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²⁷⁾ 그는 다사 실 마타의 권익과 멸절된 비구니 승가의 복원 등에 관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1996년 인도의 사르나트 비구니 수계식이 있기 3개월 전, 한국의 강화 보문사에서 주지 스님의 지도로 율장(律藏, Vinaya Pitaka)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무렵, 비구니 승가 계맥복원을 준비하고 있던 스리랑카 측의 주취수장이며 대각회(大覺會, Maha Bodhi Society) 회장인 마팔라가마 위불라사라 스님(Ven. Mapalagama Wipulasara, 1925-2000)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위불라사라스님의 전화 내용은 “인도에 가서 비구니계를 받기 위해 선택된 10명의 다사 실 마타 대부분이 승단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위협을 느끼고 수계를 받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다. 그러니 쿠스마 당신이 다사 실 마타가 되어 수계자들의 리더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불라사라 스님 자신이 이 국제행사를 포기 하겠다”는 전화였다.²⁸⁾

26) KOLONNAWE KUSUMA “BRAVING THE UNKNOWN SUMMIT” Sri Lanka-Colombo: AKNA PUBLISHERS, 2012, 3.

27) KOLONNAWE KUSUMA, 앞의 책, 97-109.

위 내용은 재가의 불교학자였던 쿠스마 자신이 비구니계를 받고 스님이 되어야만 했던 사실에 대해 2011년 10월 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쿠스마는 다사 실 마타와 여성불자들을 돕겠다는 굳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이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이 방송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남편과 자녀들이 있던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마침내 쿠스마는 위불라사라 스님에게 자신이 다사 실 마타가 되어 비구니계를 받겠다고 전했다.

그 후 쿠스마는 한국에서 스리랑카로 돌아가 케라니야 사원(Kelaniya Raja Maha Vihara)에서 콜루비디에 마힌다 스님(Ven. Kollupitiye Mahinda)에게 계를 받고 다사 실 마타가 되었다.²⁹⁾ 이렇게 수계를 받고, 다른 다사 실 마타들과 비구니계를 받으려 인도의 사르나트로 갔다.

드디어 1996년 12월 8일에 봉행된 수계식에서 쿠스마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며 앞장서서 불자들을 도울 것’을 다짐하며³⁰⁾ 첫 번째로 역사적인 비구니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25년 동안 많은 연구와 불법홍포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2021년 8월 28일 이 논문 작성 도중에 입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② Rev. Peliyagada Sudarshana는 1968년 12월 5일생으로 스리랑카 서부에 위치한 펠리야고다에서 출생했다. 1985년 출가하여 다사 실 마타가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켈라니야 (Kelaniya) 대학에서 연구과정(External degree, 외부학위)을 수료하고, 콜롬보대학에서 3년간 수학하여 디플로마(Diploma)과정을 마쳤다. 미국으로 교화를 떠나기 전에 루완웰라 중학교에서 교법사[Dharmacharya]로 활동했다. 2000년, 대만 불광산[Fo Guang Shan]에서 열린 수계식에 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캄보디아·미국 등에 수계식이 있을 때 대표로 참가하기도 한다. 현재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수행 및 포교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 저서로는 계율에 관해 서술한 ‘비구니 파티목샤와 비나야 카르마(නිකායා පාටිමුක්ඛායා සහ විනය කිරීම්, 2016)’라는 저술이 있다.

③ Rev. Wekada Monarya Bhadra는 수계 후 환속했다.

④ Rev. Mathale Vijitha는 1942년 12월 27일 마타레 코호비리왈라(Kohobhiliwala)에서 출생했다. Sri Jayawardanepura kotte에 위치한 Vidayodhaya Maha Piriwena에서 수학했다.³¹⁾ 이 Piriwena는 1873년 시작된 강원으로 1959년 스리 자야와르테나푸라 대학교로 승격되었다. 스님은 Kaluthara Dhammavijaya Piriwena에서도 교육을 받았다. 위지타 스님은 현재 칼루타라에서 교화하고 있으며 5명의 제자가 있다고 한다.

28) https://www.youtube.com/watch?v=_mSVfxK7WfU&feature=share

29) KOLONNAWE KUSUMA, 앞의 책, 139.

30)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쿠스마 데벤드라-상>, 《법보신문》, 2018년 9월 26일.

31) Vidayodhaya Maha Piriwena는 1873년 시작된 강원(Piriwena)으로, 1959년 스리 자야와르테나푸라 대학교로 승격되었다.

⑤ Rev. Dalupothagama Hemapali는 근황을 알 수 없다.

⑥ Rev. Chinttha Chandradassi 역시 근황을 알 수 없다.

⑦ Rev. Karawanelle Sama는 1961년 2월 7일 Karawanelle에서 출생했다. 1987년 5월 22일 다시 실 마타가 되었다. 1996년 인도에서 수계한 후 스리랑카와 외국인 수행자에게 계율을 가르치고 있다. 스리랑카와 인도인 제자가 있다고 한다. 스님의 좌우명은 ‘안일하게 쉬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Sama 스님은 현재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켈라니야 보매양사(Bomeyansa, 보명사)에서 교화하고 있다.

⑧ Rev. Bandarawela Sudhammika에 대한 근황도 역시 알 수 없다.

⑨ Rev. Galle Subhadra는 입적했다고 한다.

⑩ Rev. Thammita Subhadra에 대한 근황 역시 알 수 없다.

위 10명의 스님들 근황을 조사한 결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쿠스마 스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간략하다. 거의 근황을 알 수 없으며, 환속했고, 또는 입적했다고 한다. 스리랑카 수담미카 스님에게 자료 요청시 수계자 본인의 활동과 그의 제자들의 활동 등을 묻는 몇 개의 항목을 만들어 자료 요청을 했으나 전해 받은 자료가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것을 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자료조사가 어려웠던 것 같다.

1996년 수계 후에 이 스님들과 어떤 교류가 더 있었는지에 대해, 목탁혜은 스님께 문의했더니 그들을 한번 초청하여 국내여행을 했고 떠날 때 소형카메라를 선물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³²⁾ 그 후에는 교류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스리랑카에서도 10명 스님을 배출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했던 대각회 회장 M. 위불라사라 스님의 2000년 10월 28일, 놀랍고도 갑작스러운 입적으로 위세가 많이 꺾이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쿠스마 스님도 그의 저서에서 ‘마팔라가마 위불라사라 테로의 서거로 바라나시 비구니의 수가 감소했다.’³³⁾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04년 12월 26일 스리랑카에 쓰나미(Tsunami)가 덮쳤고 큰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불교계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던 한국불교 대표단 스님들을 1996년 수계자 스님들이 찾아와서 ‘쓰나미로 사찰이 없어지고 생활도 어렵다’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비구니 원로 자민스님이 주축이 되고, 진관사·보명사·한마음선원 등 여러 스님들의 후원으로 화주를 해서 지금 (7)Sama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는 켈라니야 보명사를 건립해 주었다고 한다.³⁴⁾

본 수계식 후의 상호교류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도이고 더 많은 교류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

32) 목탁혜은 스님께서 2021년 8월 17일, 전화로 전해주셨다.

33) Kusuma, ‘Bhikkuni Vinaya’, (Sri Lanka, Colombo,: B.C.C. Printin Press (PVT) Ltd, 2019), 422.

34) 켈라니야 보명사의 설립과정에 대해서는 자민스님께 2021년 10월 10일 전화문의로 들었다.

IV. 본 수계식이 스리랑카 비구니 승가의 정착에 미친 영향

본 논문에서 논해지고 있는 1996년 인도 사르나트 수계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 수계식의 주관은 한국측에서는 조계종단을 비롯하여 몇 개의 종단이 협력하였고, 스리랑카측에서는 대각회 회장인 M. 위불라사라 스님이 앞장서 주관한 사실은 이미 밝혔다. 이 수계식 준비과정에서 위불라사라 스님은 면접을 봐서 유능한 다사 실 마타 22명을 뽑았으며, 그 가운데서 다시 10명을 선발하였다. 그들은 수계 후 인도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이렇게 선발된 다사 실 마타들은 1996년 3월에 콜롬보 서쪽에 위치한 Rathmalana의 Paramadhamma Chethiya 강원에서 습의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경(經, Sutta)·율(律, Vinaya)·불교문화·불교역사·빨리어·영어 등이다. 그동안 교육을 받은 다사 실 마타들은 1996년 12월 1일, 계를 받기 위해 인도로 갔다. 이들은 12월 8일, 비구니 구족계를 받기 이전에 흰옷을 입고 사르나트의 물라간다굴디 비하라(Mulagandhakuti Vihara)에서 먼저 5계를 수계하고, 그 다음 10계를 받았다.³⁵⁾

그리고 마침내 12월 8일, 바라나시에 있는 사르나트의 다메크 탑(Dhamekh sutupa) 앞에 야외 계단을 차리고 뜻깊은 수계를 받게 된다.³⁶⁾

계단구성표에 명시된 한국 스님들이 수계사가 되어 스리랑카 사미니들에게 비구니계를 수계함으로 비로소 단절되었던 비구니승단이 복원되었다.

이 수계식에는 행사를 주도했던 한국불교 종단의 지도자 스님들은 물론 스리랑카의 가부루 비띠예 난다 스님(Ven. Kaburupitiye Nanda)을 비롯한 원로스님 6분이 참석하여 힘을 보태주었다. 그 외에도 인도 불교계와 타이완·미국·티베트·중국 등 각 나라 불교대표들과 사부대중이 많이 참가했으며, 대중 매체를 통하여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며 ‘980년만에 복원된 비구니 승가’로서 주목을 받았다.³⁷⁾ 이 수계식이 스리랑카 신문 1면에 실리면서 우파삼빠다(upasampada, 具足戒)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새로 탄생한 비구니들에게 많은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³⁸⁾

구족계를 받은 10명의 비구니는 사르나트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며 수타·비나야·빨리어·산스크리트어 등을 공부하며 함께 수행했다. 이 교육을 맡아 주관한 스님은 아다웰라 데와시리(Ven.Adhawala Dewasiri) 스님이었다.

35) Lakshapathiye Samadhi, ‘Meheniwatha(මෙහිනිවත)’, (Sri Lanka Colombo: D.C.L. Printers (PVT) Ltd, 2013), 97.

36) 난다라타나, 앞의 논문, 71-72. ; 관음종 홍파스님 대담(2020년 7월 29일 오후 2시)중에서.

37) Lakshapathiye Samadhi, 앞의 책, 98.

38) Kusuma, ‘Bhikkuni Vinaya’, (Sri Lanka, Colombo: B.C.C. Printin Press(PVT) Ltd, 2019), 422.

이렇게 스리랑카에 비구니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이 생겼지만, 그들은 비구니로서 본국에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수계식 후에 스리랑카의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비구니 승가복원에 대한 승려들과 학자들의 찬반논쟁이 연일 계속 되었다. 그 이유는 비구니계를 수계한 한국불교가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이었다. 인도에서 구족계를 받고 3(2)³⁹⁾년만에 돌아왔지만 승가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들은 자기 사원으로 돌아가 나름대로 교화하고 수행하며 생활했다.

이후 스리랑카 불교계는 1996년 수계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시정하며 또 다른 수계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새로 준비하는 수계식은 ‘테라바다식으로 수계한다’는 목표 아래 시작되었다.

1997년 6월 17일, 미리 선발된 26명의 다사 실 미타들에게 사미니 10계를 주고, 구족계를 받기 위한 준비로 8개월간 특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교육하였다. 최종 20명이 통과되어 1998년 2월 14일 수계를 받기위해 인도의 붓다가야(Buddha Gaya)로 갔다. 이 사미니들은 1998년 2월 19일, 타이완 불광산사의 성운스님과 불광산사 비구니 스님들이 주관한 국제적인 수계식에서 테라바다식으로 수계를 하고 바루와 가사를 받았다. 이 수계식 이후, 20명의 수계자들은 사르나트로 가서 스리랑카 원로비구스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수계를 받으면서 비구·비구니의 이부(二部) 승가도 이루어졌다. 이 비구니 스님들은 1998년 2월 27일, 마침내 스리랑카로 돌아왔고 카투나예카(Katunayaka)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붓다가야에서 새로 비구니계를 받은 20명이 스리랑카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수계 받기를 원하고 있던 사미니 20명이 칼룬데와(Kalundewa) 비구니 사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미니들에게 1998년 3월 11일-12일에 걸쳐 랑기리 다불루 시마 말라카(Sima Malaka, 계단)에서 비로소 스리랑카 비구니로서 계를 주었다. 이 수계식은 비구·비구니의 이부승가가 함께 참석하여 이루어졌다.⁴⁰⁾

이상,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스리랑카 비구·비구니 스님들에 의해 수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는 1년에 한 번씩 스리랑카 비구니 교육기관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마지막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미니들을 중심으로 랑기리 다불라 시마 말르크에서 수계식을 봉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스리랑카 불교계와 여성불자들이 좀더 원했던 방향으로 다시 스리랑카 비구니계맥이 복원되고 안착되었다.

이렇게 1998년 수계식은 스리랑카 불교구성원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완·

39) Kusuma와 Sudarshana는 스리랑카에서 교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2년만 연수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기간을 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저서도 있다. 처음 3년으로 계획했지만 중간에 2년으로 축소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40) Lakshapathiye Samadhi, 앞의 책, 103.

시정하여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과 타이완이 주관한 두 번의 수계식에 대해 이 수계자들의 리더였던 쿠스마 스님은 “이 두 번째(1998년) 우빠삼빠다로 가는 길은 첫 번째(1996년) 우빠삼빠다로 포장되었다.”⁴¹⁾라고 말했을 만큼 한국불교는 불광산사가 주최한 수계식이 인정받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튼실하게 잘 닦아 놓았다는 뜻일 것이다.

V. 결 론

오늘날 스리랑카를 비롯한 남방불교에서는 ‘비구니 계맥복원’이라는 문제가 큰 관심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찍이 스리랑카 비구니 계맥을 복원시켰던 한국불교는 매우 선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후 25년이 지난 지금 스리랑카는 1천명이 넘는 비구니 스님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 수계식이지만 당시 수계식 진행에 대한 공식적이고 기본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못하다. 수계식에 참석하여 수계하였던 원로 스님들조차도 어느 종단소속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이 분야 연구자들이 본 수계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논자에게 의논해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부분의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게 되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입적하신 스님도 여러분이고, 당시 주관했던 스님들의 기억에도 한계가 있어서 정보의 정확도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으로는 이렇게라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사르나트 수계식의 중요한 사실들이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국불교의 수계식이 미친 영향력은 쿠스마 스님이 언급했듯이 불광산사가 주관했던 붓다가야 수계식이 스리랑카 불교계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보완되어 인정받고 정착하기까지 한발 앞서서 기반을 잘 닦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스리랑카 비구니 승가의 복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여론을 국내외에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상, 본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1996년의 한국불교가 주관한 수계식과 1998년 타이완 수계식만 언급했지만 사실상 스리랑카에서는 비구니 계맥단절 후 복원을 위한 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불교보다 앞서 1988년 수계를 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라이(Hsi Lai)사의 수계식 등이 이런 경우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과정들을 다음 논문에서 논할 예정이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복원된 비구니 승가가 명실공히 스리랑카 불교승단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발전해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41) Kusuma, 앞의 책, 420.

References

- 마성 (1998). 스리랑카의 불교법난사. 경남: 가야사.
(Translated in English) Ma, Seong. (1998). *The Sri Lankan History of Suppression of Buddhism*. Gyeongnam: Gaya Publisher
- 한국비구니연구소 (2007). 한국비구니수행담론中. 서울: 뜨란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Korea Bhikhun Institute. (2007). *Discourse on the practice of Korean nuns*. Seoul: Tranbook.
- Nandarata (2002). The current state of Theravada Buddha, *The Buddhist Review*, 13, 54-78.
- Ambala Sri Rohana Nhanashila (2012). *Sirilaka Meheni Udhawa*(සිරිලක මහෙනි උද්භව), Sri Lanka-Colombo: Ajith Printers (PVT) Ltd.
- Inamaluwe Sri Sumangala (2019). *Study on Sri Lankan nuns*(ශ්‍රී ලංකාවේ නික්මුණ මාර්ගය පිළිබඳව විමර්ශනය කිරීම), Sri Lanka-Colombo: M.D. Gunasena & Co(Pvt) Ltd.
- KOLONNAWE KUSUMA (2012). *BRAVING THE UNKNOWN SUMMIT*, Sri Lanka-Colombo: AKNA PUBLISHERS.
- Kusuma (2019). *Bhikkuni Vinaya*, Sri Lanka, Colombo,: B.C.C. Printin Press (PVT) Ltd.,
- Lakshapathiye Samadhi (2013). *Meheniwatha*(මහෙනි වත), Sri Lanka-Colombo: D.C.L. Printers (PVT) Ltd.
- Peliyagada Sudarshana (2016). *Nuns, Patimoksha and Vinaya Karma*(නික්මුණ මාර්ගය සහ විනය කාර්ම), Sri Lanka-Colombo; Lakkom Printers.
- Beopbo Newspaper. (2004.08.10.). Monk Seoam's nirvana. Retrieved 2021.11.05. from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
- Beopbo Newspaper. (2018.09.26.). Kusma Devendra. Retrieved 2021.11.05. from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37>
- Beopbo Newspaper. (2020.03.16.). Buddhist monk Euihyun, the 25th and 26th general secretary 1. Retrieved 2021.11.05. from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652>
- Beopbo Newspaper. (2020.03.23.). Buddhist monk Euihyun, the 25th and 26th general secretary 2. Retrieved 2021.11.05. from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36>
- Beopbo Newspaper. (2020.03.27.). Buddhist monk Euihyun, the 25th and 26th general secretary 2. Retrieved 2021.11.05. from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14>
- Newsis (2020.04.23). Appoint a monk from Donghwasa Temple. Retrieved 2021.11.05. fr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3_0001004261